

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

【지역이슈분석 2011-11】

2011. 10. 28.

한·러 경제교류 현황과 경제협력 확대방안

목 차

I. 검토 배경	1
II. 러시아 경제동향	2
III. 양국간 경제교류 현황	7
IV.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방안	11



■ 1990년 9월의 한-러 수교 이후 정치·경제·문화·인적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양국간 교류가 전반적으로 확대 발전해 왔음. 특히, 2010년 9월, 양국은 수교 20주년에 즈음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을 한층 더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동년 11월에는 G20 정상회의 직후 한-러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분야에 대한 협력강화의 전기가 마련됨. 또한 1997년부터 한-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교역·투자, 에너지·자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왔고 금년에도 한-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개최됨에 따라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함.

I. 검토 배경

□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 필요성 증대

- 1990년 9월의 한-러 수교 이후 정치·경제·문화·인적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양국간 교류가 전반적으로 확대 발전되었으며 2010년 9월, 양국은 수교 20주년에 즈음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을 한층 더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형성
 -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 ('08.9월, 정상회담)
- 2010년 11월, G20 정상회의 직후 한-러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분야에 대한 협력강화의 전기 마련
 - 러시아는 '09년부터 경제현대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
- 양국은 또한, 1997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한-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교역·투자, 에너지·자원, 건설·교통, 과학기술, 보건·의료, 문화·관광 등의 분야에서 협력방안 지속 모색
 - '11년 10월 말, 한-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러시아의 주요 경제현안이 논의되고 있으며, 한-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에서 발굴된 의제에 대한 협력 추진 필요



II. 러시아 경제동향

1. 국내 경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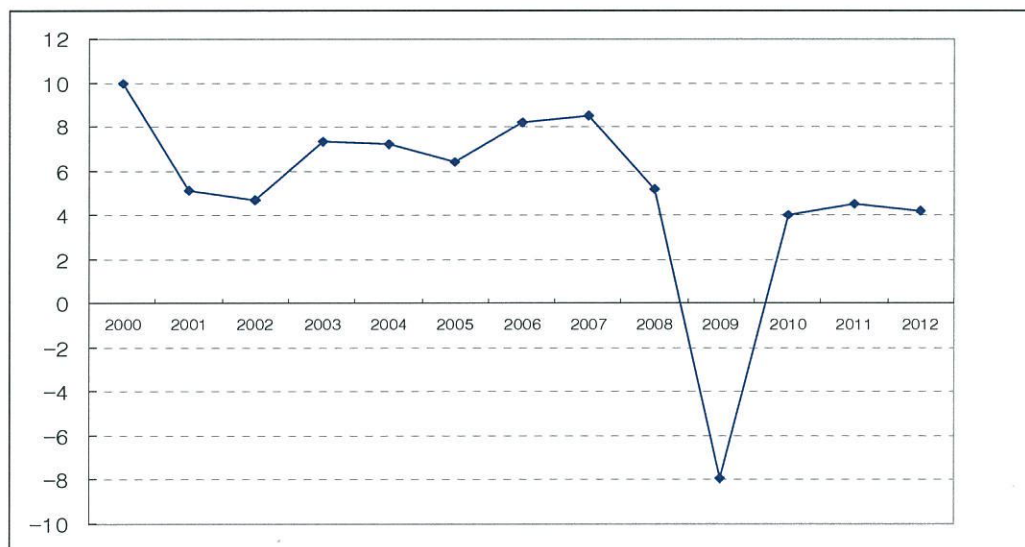
(1) 경제성장

□ 러시아는 2000년(푸틴 대통령 집권) 이후 정치 안정, 유가 상승 등으로 2000~08년 연평균 7%대의 고도성장 시현

-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해외수요 감소, 원자재 가격하락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2009년에는 마이너스 7.8%의 경제성장률 기록 (경기위축 현상 발생)
- 2010년에는 국제유가 상승, 러시아 정부의 부양정책 효과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플러스 4.0%로 반전되었고, 2011년에는 실질소득 증가(실업률 6.5%) 등에 의한 내수 진작으로 전년과 유사한 4% 수준으로 예상

<그림 1> 러시아의 경제성장률 추이

단위: %



자료: European Commission.



- 러시아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내수 회복을 바탕으로 완만한 상승기조 전망 (2011~15년 연평균 4.4%의 성장 예상)
- 러시아가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, 세계경기의 둔화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과 외국인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 타격을 받을 가능성 상존 (유럽 재정위기 지속, 세계 경기회복 지연 등 우려)
- 우랄산 유가가 10% 변동할 경우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1% 정도 조정되는 경향

<표 1> BRICs 국가의 경제성장률 비교

단위: %

	2001	2002	2003	2004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 ^f
브라질	1.3	2.7	1.1	5.7	3.2	4.0	6.1	5.2	△0.6	7.5	3.8
러시아	5.1	4.7	7.3	7.2	6.4	8.2	8.5	5.2	△7.8	4.0	4.0
인도	3.9	4.6	6.9	7.6	9.0	9.5	10.0	6.2	6.8	10.1	7.8
중국	8.3	9.1	10.0	10.1	11.3	12.7	14.2	9.6	9.2	10.3	9.5
세계	2.1	2.6	3.3	4.6	4.3	5.0	5.1	2.5	△1.3	5.0	3.8

자료: IMF, World Economic Outlook, September 2011.

(2) 물가

□ 2000년대 오일 달러의 대량 유입 등으로 고물가 형성

- 세계적인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2008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4.1%를 기록해 사회문제로도 대두



- 2009년에는 루블화 강세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었으나, 2010년에는 가뭄과 산불의 영향으로 식료품 가격이 일시 폭등하면서 연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.9% 기록 (인플레이션 압박 가중)
- 2011년에는 12월 총선과 내년 3월의 대선 등을 감안한 예산지출 확대 편성, 식료품 및 공공요금 인상, 소매매출 증가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보다 높은 7.5~9.0%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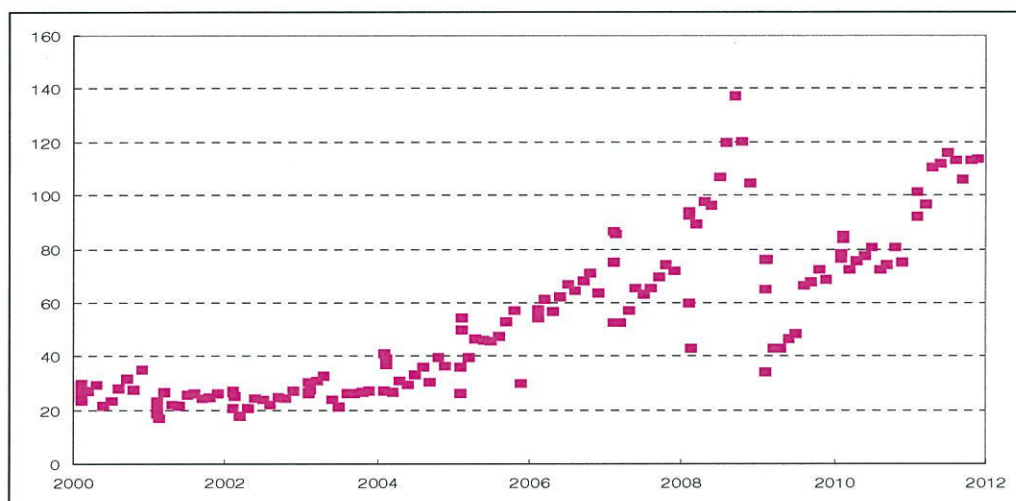
(3) 재정수지

□ 2000~08년 재정수지는 흑자기조를 나타냈으나, 2009년 이후 적자기조 시현 (국제유가 변동의 영향권)

- 2009년 이후 국제유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5% 수준에서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며, 2010년에는 재정지출 억제, 고유가, 경기회복으로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4% 이내 억제 (유럽 재정위기국에 비해 관리가능)

<그림 2> 우랄산 유가 변동 추이

단위: %



자료: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.



-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락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2002년부터 석유안정화기금(SF)을 적립하였고, 2008년 2월부터는 적립기금(RF)과 국부기금(NWF)을 운용
 - 석유안정화기금 적립현황: 1,520억 달러('09년 말, GDP의 11.6%)
- 2011년에는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1% 이내로 전년에 비해 크게 축소될 것('11년 1~7월 2.5% 수준의 흑자기록)으로 예상되나, 국제유가가 러시아 정부의 예상보다 하락시 적자확대 가능
 - 2011-12년 예산안 편성시 우랄산 유가/배럴 추정: 108달러 및 100달러

2. 대외거래

(1) 경상수지

□ 주요 수출품목인 원유·천연가스 수출실적에 따라 경상수지가 영향을 받고 있으며, 경상수지는 흑자기조 유지

- 2009년 이후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4% 수준 기록
 - * 경상수지/GDP: 4.0%('09) → 4.5%('10) → 4.9%('11)
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자본 유출, 오일 달러의 유입 감소 등으로 루블화 가치가 약세로 전환되어 '09년 2월에는 미달러 대비 35.8루블까지 하락했으나 점진적 강세 시현
 - * 연평균 환율(루블/미달러): 31.7('09) → 30.4('10) → 28.8('11)
- 2011년에 들어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축되었던 수입규모가 내수 회복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2011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폭은 축소 전망



- 주요 수출품목(원유, 천연가스)의 수출액이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고, 비에너지 부문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상황 (2011~15년 수출은 평균 10% 이내 증가예상)

(2) 외환보유액

□ 세계 제3위의 외환보유국

- 2002년 441억 달러에 불과하던 외환보유액은 유가 상승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8월, 5,966억 달러(사상 최고치) 기록
- 2008년 8월 그루지야와의 전쟁 발발,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자본 유출, 루블화 가치하락을 억제하기 위한 보유외환 소진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2009년 4월, 3,839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
- 외환보유액은 2010년 6월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0년 말에는 4,436억 달러(월평균 수입의 14개월분 수준)를 기록 (2011년 9월 1일 기준 5,320억 달러 추정)

(3) 외국인직접투자

□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입이 지속 증가했으나 2008년 하반기 이후 위축

-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03년 80억 달러 수준에서 2008년에는 750억 달러로 급증했으나 2009년에는 365억 달러, 2010년 412억 달러로 급감 (선진권의 경기침체로 투자심리 위축)

<표 2> 러시아 FDI 유입규모 추이

단위: 억 달러

2005	2006	2007	2008	2009	2010
129	297	551	750	365	412

자료: UNCTAD.



* '11년 3월말 누계기준으로 FDI 유입규모는 1,203억 달러 수준

- 2007~10년 투자실적에서 사이프러스, 버뮤다, 네덜란드,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및 룩셈부르크가 전체의 62.4%를 차지하며 특정국의 투자 편중현상 지속

* 제조업에 대한 주요 투자국: 독일, 미국, 스웨덴, 영국 및 프랑스 등

<표 3> 러시아 주요 거시경제 지표

	2007	2008	2009	2010	2011 ^f
GDP (억 달러)	12,997	16,608	12,219	14,794	17,969
경제성장률 (%)	8.5	5.2	-7.8	4.0	4.0
인구 (백만 명)	142.3	141.8	141.9	141.7	141.5
1인당 GDP (달러)	14,879	16,062	14,933	15,755	16,706
실업률 (%)	6.1	6.4	8.4	7.5	6.8
소비자물가상승률 (%)	9.0	14.1	11.7	6.9	8.6
재정수지/GDP	5.4	4.1	-5.9	-4.0	-0.8
환율 (루블/미달러)	25.6	24.9	31.7	30.4	28.8
경상수지/GDP	6.0	6.2	4.0	4.5	4.9
외환보유액 (백만 달러)	466,750	411,750	416,649	443,586	..

자료: IMF.

III. 양국간 경제교류 현황

1. 교역

(1) 교역규모

□ 1992~2008년 기간 중 교역규모 90배 이상 증가

- 양국간 교역규모는 1992~2008년 기간 중 90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,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교역규모가 감소했으나, 2010년에는 양국간 교역규모가 전년 대비 77% 증가하는 등 회복세 시현



- * 양국간 교역규모(단위: 억 달러) (한-러 교역 통계는 1992년부터 집계)
 - 1.9 ('92) → 28 ('00) → 78 ('05) → 181 ('08) → 99.8 ('09) → 176.6 ('10)
 - 2011년 1-8월 교역규모: 140.2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28% 증가)

<표 4> 최근 20년간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규모 비교

단위: 억 달러

	1991		2010	
	한국	러시아	한국	러시아
G D P	3,156	3,066	10,144	14,794
수 출	719	1,133	5,315	4,446

자료: IMF 및 World Bank.

(2) 수출

□ 1992~2010년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출은 65배 증가

-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출은 1992년 1.2억 달러에서 2010년에 77.6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, 2010년 기준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12대 수출상대국('10, 총수출의 1.1%)이며,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12대 수출상대국('10, 총수출의 2.9%)

* 1992~2000년 한국은 러시아로 의류 및 영상기기를 주로 수출했으나 2005년 이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이 주요 수출품목으로 부상

(3) 수입

□ 1992~2010년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입은 141배 증가

-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입은 1992년 0.7억 달러에서 2010년 99.0억 달러로 확대됐으며, 2010년 기준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12대 수입상대국('10, 총수입의 2.3%),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8대 수입상대국('10, 총수입의 3.3%)



* 1992년 수교 이후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철강제품, 알루미늄, 합금철선 및 고철을 수입하고 있으며, 특히 2000년 이후 수입품목 중 원유 비중 증대

(4) 무역수지

□ 2005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던 대 러시아 무역수지는 2006~07년 흑자 전환 후, 2009년 다시 적자로 반전

○ 2010년 대 러시아 무역수지 적자는 루블화 대비 원화강세 및 관세인상 등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이 주원인

*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원유, 가스, 철광석 및 우라늄 주요 도입대상국

<표 5> 한·러시아 교역 추이

단위: 백만 달러

	1992	1995	2000	2005	2007	2008	2009	2010
수 출	118	1,416	788	3,864	8,088	9,748	4,194	7,760
수 입	75	1,893	2,058	3,937	6,977	8,340	5,789	9,899
무역수지	43	△477	△1,270	△72	1,110	1,408	△1,595	△2,139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2. 투자

□ 2011년 6월말 누계기준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투자 18.1억 달러 기록

○ 2000년대 들어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투자가 급증하여 2011년 6월말 누계기준으로 18.1억 달러 기록 (우리나라 투자의 1.0%)

*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실적 중 우리나라가 전체의 0.2% 수준



<표 6>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(실행기준)

단위: 백만 달러, %

연 도	1992	1995	1998	1999	2000	2004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
투자액	3	31	35	1	4	25	35	114	226	358	429	333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.

- 2005년 이전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투자는 저조했으나, 2006년 이후 매년 1억 달러 이상 투자 (우리나라의 18위 투자대상국)
- 2007~09년 연도별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투자실적은 2.3억달러, 3.6억 달러, 4.3억 달러로 증가추세를 시현했으나, 2010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한 3.3억 달러 기록
- * 현대자동차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건설, 한-러 합작 조선소, 연해주내 영농단지 인수 등 우리 기업의 러시아에 대한 직접투자가 확대 추세
- 주요 투자분야는 제조업, 광업 및 도소매업이며, 주요 생산품목은 자동차(부품), 전자제품(컴퓨터, 가전), 원유·천연가스 및 석탄 채굴, 식료품 등

<표 7> 최근 러시아에 대한 FDI 유입 추이

단위: 백만 달러

2005	2006	2007	2008	2009	2010
12,886	29,701	55,073	75,002	36,500	41,194

자료: UNCTAD.

□ 러시아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실적은 미미한 수준

- 러시아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는 2010년 말 누계기준으로 4,577만 달러에 불과한 수준



<표 8> 러시아의 대 한국 직접투자 현황(2010년 말 누계기준)

단위: 천 달러

총계		제조업		서비스업		전기·가스·수도·건설	
신고건수	신고금액	신고건수	신고금액	신고건수	신고금액	신고건수	신고금액
470	45,773	54	14,094	408	31,281	8	398

자료: 제조업의 경우 기계, 전자 업종 위주로 투자.

자료: 지식경제부.

IV.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방안

1. 러시아의 경제정책 및 투자환경 평가

(1) 경제구조

□ 에너지에 대한 산업의존도 심화 지속

- 원유, 천연가스 등 에너지에 대한 산업의존도가 총수출의 3분의 2, GDP의 20%, 재정수입의 50%로 러시아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 형성

* 우랄산 유가/배럴: 72달러('09.12) → 79달러('10.12) → 108달러('11년 상반기)

(2) 경제정책 변화

□ 러시아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(러시아 경제향방의 주요 관건)

- 러시아 정부는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부터 경제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, 5대 핵심전략 산업 중점 육성과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혁신 추구

* 5대 핵심전략 산업의 추진방향: 에너지 효율화(신 연료 개발 등), 원자력, 우주과학, 의료(진단장비 및 의약품 포함), 정보통신(소프트웨어 개발 등)



(3) 투자환경

□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및 제도의 개선 필요

- 외국인투자 저해요인은 잦은 법규 개정, 법규간 상호 모순, 규정 해석의 일관성 결여 등이며, 인허가 취득시 담당자별 상이한 처리방식 등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상 문제점 상존 (부정부패 및 관료주의 만연)

* GCI 순위 (WEF): 64/133위(2009) → 63/142위(2010) → 66/142위(2011)

* Doing Business 순위 (IFC): 123/183위(2010) → 120/183위(2011)

(4) 국제신인도

□ 2009년 하반기 이후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

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외환보유액 급감, 유가 하락, 자본 유출 등을 이유로 러시아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
 - OECD는 자본유출, 국제유가 등락에 좌우되는 취약한 경제구조, 금융기관의 부실문제 등으로 러시아 등급 강등
- 2009년 하반기 이후 러시아 경제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냄에 따라 러시아의 국제신인도 개선
 - OECD는 경제지표 개선, 외국인투자 유입 지속, 양호한 외채현황 등을 사유로 러시아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

<표 9> 러시아 국가신용등급 변동내역

평가기관	국가신용등급 변동내역
O E C D	3등급 → 4등급('09.10) → 3등급('11.1)
S & P	BBB+/Stable → BBB/Negative('08.12) → BBB/Stable('09.12)
무 디 스	Baa1/Positive → Baa1/Stable('08.12)
피 치	BBB+/Stable → BBB/Negative('09.2) → BBB/Negative('10.1) → BBB/Positive('10.9)



2.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러시아의 경제적 중요성

(1) 거대한 내수시장

□ 세계 1위의 면적, 세계 9위의 인구 보유

- 러시아는 세계 1위의 면적(한반도의 76.8배), 세계 9위의 인구(1.4억 명), GDP 1.5조 달러('10년)의 세계 11위권 경제대국으로 거대한 내수시장 보유
- * 성장잠재력, 거대한 내수시장, 중산층 확대에 따른 구매력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여타 BRICs 국가들과 함께 미국·유럽을 보완하는 시장으로 부각
- 최근 카자흐스탄 및 벨로루시와 관세동맹을 체결('10.1월 발효)하여 1억 7,500만 인구를 가진 거대 소비시장을 형성, CIS 및 유럽시장 진출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
- * WTO 가입('93년 신청) 성사시 교역 및 투자 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

(2) 풍부한 자원

□ 원유, 천연가스 등 부존자원 풍부

- 러시아는 부존자원이 풍부한 국가로서 원유, 천연가스, 광물, 목재 등의 매장량이 세계적인 수준
- 2010년 기준 원유 생산량(세계 1위)은 1,027만 배럴/日(점유율 12.9%, 사우디: 점유율 12.0%), 천연가스 생산량(세계 2위)은 5,889억 m³(점유율 18.4%, 미국: 점유율 19.3%) 수준



<표 10> 러시아의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

	매장량	세계 순위	세계 점유율(%)
천 연 가 스	44.8조 m ³	1위	23.9
원 유	774억 배럴	7위	5.6
석 탄	1,570억 톤	2위	18.2
철 광 석	250억 톤	3위	13.9
니 켈	600만 톤	4위	7.9
텅 스 텐	25만 톤	2위	8.6
금	5천 톤	3위	9.8
다이아몬드	4천만 캐럿	5위	6.9
우라늄	48만 톤	4위	8.9

주: British Petroleum, US Geological Survey. 2010년 기준.

3. 한-러 경제협력 확대방안

(1) 경제현대화 분야의 협력사업 발굴

□ 우리나라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극동연안에 위치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 필요

- 2010년 9월 양국간 정상회담으로 교역·투자, 에너지자원, 과학기술,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경제협력 합의
 - 금융, 건설·인프라, 환경, 보건·의료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 체결 등 추진
- 러시아가 추진하는 경제현대화 정책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녹색성장, 산업 선진화 등과 부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간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발굴 절실
 - 스콜코보(Skolkovo) 첨단산업단지 조성('10.3, R&D 조성계획 발표) 등의 사업 추진 참여 (러시아 기초과학기술과 우리 기업의 상용화 기술 및 마케팅 능력 결합으로 시너지효과 창출 기대)



- * 한-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('92년 부총리급 협의체로 발족, '97년부터 매년 개최), 비즈니스포럼 개최 등을 통해 공동협력사업 발굴 필요
- 양국간 협력사업(자원개발, 인프라 건설 등) 추진에 필요한 공동 프로그램 발굴 및 금융협력 강화
- * 한국수출입은행은 러시아대외경제은행(VEB)과 '08년 9월 10억 달러한도의 금융협력협정(FA) 체결 (경제현대화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추진)

(2) 에너지자원 협력 확대

□ 가스전 개발 사업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

- 남-북러 가스관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실무문제 협의 추진
 -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할린, 하바롭스크,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러 극동 가스관 라인이 2011년 9월에 개통되어 남-북러 가스관 건설프로젝트 추진 가시화
- * 한국가스공사-가스프롬(러)간 MOU 체결('08.9) 및 로드맵 서명('11.9), 원유공업성(북)-가스프롬간 실무그룹 구성합의 및 MOU 체결('11.9) 등
- 러시아는 가스전 탐사, 가스·LNG 생산 등을 포괄하는 에너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가스프롬 등의 가스전 개발 발주사업에 우리나라의 참여 및 금융지원 필요
- * '98년 북극 Barrents해에서 발견한 Shtokman 가스전의 매장량은 3조 9천억 m³로 세계 10위 규모(세계 가스소비량의 1.4년치 해당)이며, 한국수출입은행은 가스프롬과 MOU 체결 추진 등 검토

(3) 러시아 정부의 투자사업 참여

□ 러시아 정부가 집중 투자하려는 분야에 대해 양국간 경제협력 범위 확대

- 러시아 정부는 2012~14년 정부예산안을 확정('11.9)하면서 경제현대화 정책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편성



- 2012년 중 항공기, 조선,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(1,560억 루블), 의료산업 육성(100억 루블), 우주·통신 부문 육성(1,610억 루블), 컴퓨터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(400억 루블) 등에 집중 투입할 계획

* 2012년 연방정부 예산 지출계획: 12.7조 루블

- 러시아 정부는 2010년 10월 900여개 국영기업의 정부지분 매각계획(2011~15년, 580억 달러 상당)에 의거, 금융기관, 석유 및 전력 관련 핵심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추진

* 매각 대상기업: VTB(대외무역은행), Rosselkhozbank(농협), Sberbank(저축은행), Transneft(송유관), Rosneft(석유), RusHydro(수력발전) 등

(4) 한-러 FTA 추진 등

□ 양국간 경제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FTA 추진을 적극 검토할 필요

- 우리나라는 BRICs와 무역·투자 확대를 위해 FTA를 적극 추진·논의 중이나, 러시아와는 2008년 7월 이후 답보상태

<표 11> 우리나라의 BRICs 국가와의 FTA 추진 현황

FTA	추진 내용
한-인도 CEPA	2010년 1월 발효
한-중국	공동연구 종료('10.5), '정부간 사전협의' 진행
한-MERCOSUR	공동연구 종료('07.10), 무역·투자증진 공동협약체 설립('09.7)
한-러시아	FTA 추진 합의('05.11), 양국간 경제동반자 협정(BEPA) 공동연구그룹 진행('07.10-)

주: CEPA -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(실질적으로 FTA와 동일)
MERCOSUR(남미공동시장) - 아르헨티나, 브라질, 파라과이, 우루과이 및 베네수엘라

작성 :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
부실장 조양현 (3779-5707)
yhjo@koreaexim.go.kr